

독서와 사색하는 갈대

김정흠

고려대 명예교수·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

사람의 사람다운 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람만이 다른 동물과 달라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물분류학상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 즉 '생각하는 사람'이라 부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저 유명한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과학자인 파스칼(Blaise Pascal, 1623~62)도 사람을 "생각하는 갈대(thinking reed)"라 비유하고 있다. 즉 그의 저서(그의 사후에 발간)인 「팡세」(Pensées, 명상록)에서 "인간은 자연계에서도 가장 약한 한 줄기의 갈대에 불과하다. 다만 그 갈대는 생각하는 갈대이다"라 표현하고 있다.

사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사색하는 동물인 동시에 그 사색을 도와주는 책을 읽을 수 있으며, 독서를 할 줄 아는 동물이기도 하다. 다른 동물들은 먹이만 충분히 주면 살아갈 수 있으나 사람의 경우는 빵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즉 인간은 물질적인 만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충족된 만족감을 얻음으로써 비로소 삶의 보람을 느낀다는 것은 성서의 구절(마태복음 제4장 제4절)에도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 적혀 있다.

그리고 그 정신적 만족감(정신적 반복감)을 충족시켜주는 행위가 바로 독서이고, 그 정신적 양식이야말로 책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독서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최근의 여론 조사의 결과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예컨대 한국출판연구소가 실시한 '94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한해동안(1994년) 한편의 책도 읽지 않은 우리나라 20세 이상의 성인이 30%, 50세 이상의 성인이 50%나 된다는 것이다.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진화니 국제화니 하고 떠드는 나라의 백성치고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숫자이기도 하다. 아프리카의 어느 식인종의 후예들도 지금은 제법 개화가 되어 이 정도의 독서는 하지 않을까 하는 수준이니 안타깝기도 하고 울화통이 터지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일설에 의하면 입시용의 참고서 보급률은 세계 상위급이라고도 한다. 원래 독서란 사색을 돕기 위한 것인데 암기위주의 참고서를 읽었다고 해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는가 말이다.

또 문화체육부 산하의 한 연구기관이 실시한 '95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가때 37.1%가 집에서 그냥 휴식, 13%가 산책을, 12.6%가 운동을 하는 반면 4.8%만이 독서를 한다 하니 한심한 노릇이다.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선진국 진입이 되겠느냐 말이다.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외국의 어느 학자가 말한 체육망국론이다. 너무도 허울 좋게 올림픽 경기에만 힘쓰다보면 나라가 쇠약해진다는 이론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나 등등 국제경기를 유치하고 각 도마다 얼마 어마하게 큰 돈을 들여 체육관과 체육경기장을 만든 나라치고는 국공립도서관은 물론이러니와 각급 학교나 기관의 도서관이 너무도 초라하고 영세하기 짝이 없다. 밤낮 예산부족 예산부족 하면서도, 하나에 수백억원씩이나 하는 체육관이나 경기장 건설에는 아낌없이 돈을 쳐넣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속빈 강정모양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사실 올림픽이나 유니버시아드나 또는 무슨무슨 게임이니 하는 데서 1등이나 2등을 한 나라치고 제대로 된 나라가 있는가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 올림픽에서 줄곧 1등이나 2등 수위권을 독차지하다시피한 소련이나 구동독의 말로는 어찌되었는가 말이다. 물론 뛰뛰구나 힘겨루기를 통해 우리 몸을 단련시킨다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텅빈 머리를 갖고 어찌하는 것인가 말이다.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으니 체육부흥에 힘쓸 돈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그 돈을 머리를 단련시키는 데 써주었으면 한다. 예컨대 도서관을 확충하고, 또 온 국민이 독서에 즐거움을 갖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분위기조성과 풍토조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표지 인터뷰	2	'돌의 편'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고미술 「한국의 석조미술」 펴낸 진홍섭박사
리뷰	4	각론으로 접어든 한국미술사 연구 독자적 연구방법론 정립할 때
초점	6	"국내 저작권 에이전시 필요하다" 작가 및 출판기획자도 긍정적 의견
쟁점	8	"도서 정가제 무너뜨릴 수 없다" 가격과 논쟁 둘러싼 출판계 뜨거운 공방
출판화제	10	운동차원 넘어 본격 학문의 터잡은 '환경학' 12 지방선거 필승 다짐하는 전락서 붓물 13 주식회사 전환으로 출판계 변화물결 출렁
번역논평	14	보르헤스 작품의 알기와 읽기-김춘진 최근 국내 번역본의 몇가지 논점
해외탐방	15	프랑스 밀리아 멀티미디어 전시회를 둘러보고-남명수
조사보고	16	"한권의 책도 읽지 않는 사람 많다" 독서세물결추진위 '독서실태조사'
통계	17	외국저작권 사용료 고액화 추세 뚜렷
책과 미술의 만남	18	책에 던져진 화가들의 다채로운 시선 ③ 중세부터 인상파 그림까지
작가가 읽은 명화	19	푸코가 읽은 마그리트의 작품세계
내가 읽은 원서	20	소설보다도 더 '감동적'인 비평서-김성곤 래슬리 피들러의 「미국소설에 나타난 사랑과 죽음」
서평	22	이정전 「녹색경제학」-유재현 윌러스틴 외 「반체제운동」-이수훈 23 한국동양철학회 「기술정보화시대의 인간문제」-이성훈 24 블랑차드 외 「스포츠 인류학」-이진수 복거일 「캠프 세네카의 기지춘」-홍용희 25 양순석 「지워지지 않을 그 연둣빛」-신철하
신간읽기	26	기업 '신화'의 탐보기
이 책 그 사람	28	「영어회화 삼국지」 펴낸 배진용씨 「香港電影 1997」 펴낸 강인형씨 29 「사람의 길, 큰사람의 길」 펴낸 박덕규씨 「우리말의 나이를 아십니까」 펴낸 박숙희씨
세계의 출판	30	전설적인 러시아 무용가 니진스키의 일기수첩·외 32 신간안내/43 어린이 책/44 새로나온 책